두차례 패소 불복 광양시 '탱크터미널' 민사소송 배경은…

미숙 행정 면피용 논란

등기에 환매특약 조항 없고 매립지 분양법률 미적용
市 "미숙한 추진 인정…절차상 오류 바로 잡아나갈것"

광양시가 광양 탱크터미널과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배경이 시 업무추진에 대한 '면피용'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2일 광양시는 부지매입시 사업 용도와 맞지 않고 토지분양 목적과도 상이하기 때문에 지난 2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힌바 있다. 〈광주일보 3월 22일 10면〉

하지만 취재결과 실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따로 있었다.

시는 지난 2002년 길호 공유수면 매립지를 분양하면서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는 5년내 목적외 사용, 매매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삽입했으나, 정작 등기에는 환매특약 조항을 빠뜨렸다.

또 매립지 분양시 전체 부지에 대해 사용용도를 시에서 정한 뒤 공고를 내고 분양한 것과 관련법(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을 명확히 적용치 않고 행정편의에 따라 분양한 결과 탱크터미널 측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이 됐다.

시의 미숙한 행정추진은 한 업체를 상대로 1000여만원의 혈세를 변호사 비용으로 허비한 것은 물론 시 대외 이미지 실추에도 악영향을 끼친 결과를 초래했다.

더욱이 시가 일부 공직자들의 행정추진 미숙함과 안이한 대처를 바로잡기는 커녕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면해주기 위해 민사소송 까지 제기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여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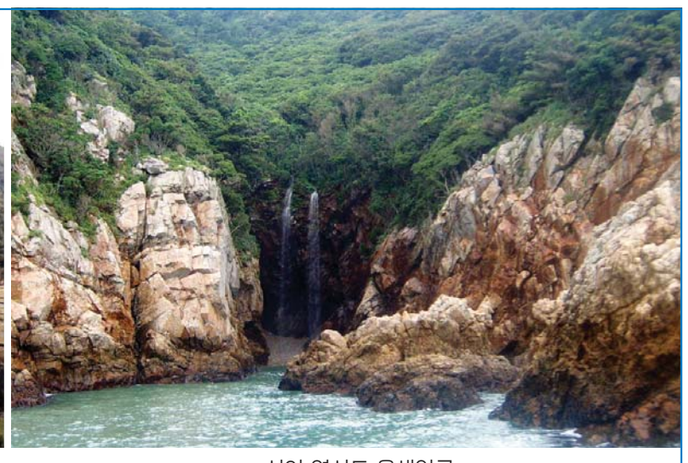
광양시 관계자는 "당시 행정추진 과정에서 명확한 관련법의 검토가 미숙한 건 있지만 해당업체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이제라도 행정절차상 오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 탱크터미널 사업은 100억원을 투입해 1만8600㎡에 연건평 670㎡로 3개 동의 건축물을 2010년 허가받아 공사중 허가권자인 광양시의 일방적 공사중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광주지법과 고법에서 승소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환매특약=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매도 물건을 다시 사들일 것을 약속한 계약을 의미한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목적물이 부동산일 경우는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유(保留)를 등기해야 한다.

고흥 팔영산 평촌마을


신안 영산도 용생암굴

고흥 평촌·신안 영산도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공원관리공단, 5억씩 지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고흥군 점암면 팔영산 평촌마을과 신안군 흑산면 영산도마을을 올해 '국립공원 명품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2010년 진도 관매도를 제1호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조성,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완도 청산도 상서마을을 추가로 조성해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진도 관매도와 신안 영산도, 완도 청산 상서마을 주민들은 공원관리청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희망하면서 국립공원에 존치를 요구한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해상국립공원 사무소는 평촌마을 주민들과 공동으로 마을환경 개선과 탐방객 편의시설 조성, 마을홍보 및 교육 동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부사무소도 이번 사업을 통해 탐방기반 인프라가 부족한 영산도 마을을 테마형 마을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영산도는 흑산도 동쪽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해 ▲섬마을 색채디자인 사업 ▲슬로푸드숍 조성·운영 ▲마을공동체 농장 조성 ▲마을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육상·해상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영산 10리길 조성 등 5개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한편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생태와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살려 많은 탐방객들에게 사랑받는 마을을 조성,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담양 블루베리 주식회사 공식 출범

초대 대표에 김재성씨

담양 블루베리 주식회사(이하 블루베리 주식회사)가 지난 28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블루베리 주식회사는 관내 블루베리 재배농가 149명이 주주로 참여, 총 5000만원의 자본금 출연으로 시작해 앞으로 2억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블루베리 주식회사 정관의 심의·의결과 함께 대표이사 등 운영위원을 선출했다. 김재성(담양읍) 씨가 초대 대표이사에, 이우형(담양읍)·송선수(금성면) 씨가 감사에 선출돼 2년간 담양 블루베리 주식회사를 이끌게 됐다.

블루베리 주식회사는 전남도와 담양군으로부터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 지원'을 받아 기존의 영농조합법인과 작목반, 개별농가를 통합·규모화하고 농업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한 생산·유통분야를 혁신시켜 시장교섭력을 갖춘 농업회사로 탄생했다.

최형식 군수는"이번 주식회사 출범을 계기로 장기적으로 유통·판매에서 가공까지 전담하는 등 지역의 블루베리 산업을 총괄해 도매시장 등의 가격폭락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특화품목인 '딸기'에 버금가는 고소득작물로 블루베리 산업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순천 와온해변서 노을 감상하세요 순천시 해룡면 노월마을앞 와온해변에 해안의 절경과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데크가 설치됐다. 시는 연면적 153㎡의 2층 구조물로 천연목재를 사용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전망데크를 설치했다. 〈순천시 제공〉

농어촌公 전남본부 지사장 책임경영 계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윤)은 2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18개 부서 지사장과 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사장 책임경영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책임경영 계약은 지사장에게 계약당사자와 연간 경영목표를 부여해 권한과 책임 범위내에서 책임과 권한을 위임해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다.

책임경영계약 주요 내용으로는 자립형 공사 실현을 위한 매출액 등 재무성과 분야를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정부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분야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 사업 성과분야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과제 등이다.

지사장은 계약기간 동안 경영성과와 계약관련 회계비리 등 부서에서 발생하는 모든 직무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전남지역본부는 연말 경영계약 이행실적을 평가 후 특별 포상금 등의 특전을 부여할 예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내달 20일까지 종자유통조사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신동하)은 오는 5월 20일까지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반기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유통조사는 광주·전남도내 종자판매상과 육묘장, 나무시장, 5일시장 등 종자·묘목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과수묘목, 채소종자, 씨감자의 생산자, 판매자를 대상으로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및 가격표시제 준수 ▲발아보증시한 경과 ▲보증표시 여부 등이다.

문의(061-322-3971)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구례 '섬진강변 벚꽃축제'

7~8일 문척면 일원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길'로 손꼽히는 구례군 문척면 동해마을에서 남도대교까지 이어지는 섬진강변에서 벚꽃축제가 열린다.

구례군은 "제8회 구례 섬진강변 벚꽃축제가 '오산과 섬진강의 만남, 가족과 함께하는 벚꽃놀이'라는 주제로 7~8일 이틀간 문척면 섬진강변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2일 밝혔다.

구례 섬진강변 벚꽃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7일 구례 좌도농악 길트임을 시작으로 패러글라이딩 축하비행, 섬진강변 벚꽃 노래자랑이 펼쳐진다. 8일에는 관광객 즉석 어울림한마당, 지역예술단체공연, 7080 벚꽃 낭만 콘서트가 이어진다. 또 벚꽃 나들이 사생대회와 구례군연합회장기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열린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